

# 제조업 중심 부진...경기 저점 지표 늘어

## KDI “경기 저점 시사 지표 증가”...하반기 반등 가능성

우리 경제가 최근 경기 저점에 가까워졌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이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급격한 하강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는 평가에서 경기저점에 더욱 접근했다는 전망이다.

4월 전(全) 산업생산은 조업일수(+1일→-1일)의 감소로 전월(20%)보다 낮은 -0.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저효과, 조업일수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증폭되면서 생산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경기 부진이 심화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광공업생산(-7.6%→-8.9%)은 자

동차(27.2%→16.6%)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26.9%→-20.2%), 전자 부품(-30.3%→-30.0%), 화학제품(-19.7%→-20.5%) 등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유지됐다.

제조업은 평균가동률(72.0%→71.2%)이 낮은 수준에 정체된 가운데 재고율(130.4%)이 전월(117.2%)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며 부진한 모습이 드러났다.

제조업 출하(-7.0%)가 감소한 가운데 재고(15.7%)는 반도체(83.3%)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제조업 부진을 반영했다.

KDI는 “제조업은 생산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평균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정체되고 재고율은 상승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라고 설

명했다. KDI는 “반도체는 생산 감소폭이 축소됐으나,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라며 “다만 반도체 수출 금액과 물량의 감소세가 일부 둔화되는 가운데(對) 중국 수출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는 등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서비스업(6.2%→3.1%)이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다.

기저효과에 기인해 숙박·음식점업(17.8%→2.0%), 도소매업(0.5%→-2.7%)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소비 증가세는 다소 약화했으나 소비자심리지수 상승세는 지속됐다.

4월 소매판매는 전월(0.1%)보다 낮은 -1.1%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도 2.3% 감소했다. 중내구재(4.1%→-3.1%)는 의복(9.6%→-3.0%)을 중심으로 감소로 전환했으며,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도 6.3% 감소하며 위축된 모습이다.

내구재(2.5%→0.4%)가 승용차(14.5%→7.6%)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비내구재(-2.3%→-1.0%)는 화장품(-11.5%)과 음식료품(-1.7%)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8.0을 기록하며 3월 이후의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되며 기준치(100)에 접근했다.

건설업(12.0%→12.2%)은 아파트 공사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집중되면서 건축부문(14.6%→16.5%)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다만 주택경기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주택착공호수(-60.4%)를 비롯한 선행지수는 부진한 모습이다.

/뉴시스

## 현대 수소차 ‘2024 넥쏘’ 출시

프리미엄 트림으로 단일화, 첨단 편의사양 탑재



현대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차 넥쏘의 연식변경 ‘2024 넥쏘’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형 넥쏘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을 기본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 에어컨용 습기 건조기인 에프터 블로우를 비롯해 USB C 타입 충전기(1열 2개, 2열 2개),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등을 장착했다.

색상은 어두운 회색 계열의 ‘아마존 그레이’가 추가됐다.

트림은 기존 모델에서 고객 97%의 선택을 받은 프리미엄 트림으로 단일화하고, 기존 프리미엄 트림에 포함됐던 와이드 선루프 및 루프랙, 19인치 휠·타이어를 선택 사양으

로 구성했다.

신형 넥쏘의 가격은 6950만원(세제혜택 적용 후)이다. 올해 서울시 기준 보조금 3250만원(국비 2250만원, 지자체 1000만원)을 감안하면 실제 고객 구매 가격은 3700만원으로 낮아진다.

넥쏘는 2018년 3월 출시 이후 올해 5월까지 3만 1995대 판매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추가 사양을 통해 고객 편의를 강화하고 고객 선호에 맞게 트림 운영을 조정했다”며 “넥쏘와 함께 상용 부문에서도 수소 모델리더를 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순천, 산장식 닭구이 밀키트 와디즈 론칭

순천 닭구이 맛집 3인3색 밀키트... ‘어디서든 빠르고 간편’

순천시가 대표 먹거리인 산장식 닭구이를 전국 최초 밀키트로 제작해 오는 21일부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금을 조달 받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 소비 주축으로 떠오른 MZ세대가 애용하는 유튜브 채널로 떠오르면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창구로 각광받고 있다.

1인 가구, 캠핑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순천시는 닭구이 밀키트 제작을 위해 포장재 구입,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관내 닭구이 3개 업소가 참여해 ‘자연주의 토종닭구이, 닭구이 오마카세(말김 차림), 명품 마늘 닭구이’ 3종을 제작 판매할 예정이다.

닭구이를 밀키트로 제작함에 따라, 별도의 재료 손질 없이 짧은 조



리 시간으로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어 줄 서서 맛보았던 순천 유명 닭구이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번 투자는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72시간 이내 투자하면 사은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신제품에 거부감이 덜한 MZ세대를 겨냥하여 순천의 닭구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최근 확대된 밀키트 시장에 맞추어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순천=주순의 기자

## 광양제철, 글로벌 모범시민 워크 시작

16일까지 약 1만여 명의 봉사자 8일간 봉사 참여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담아 ‘은고지선, For a Better World 2.0’을 테마로 ‘글로벌 모범시민 워크’에 참여한다.

‘글로벌 모범시민 워크’는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자는 취지에서 2010년 시작한 대규모 자원봉사주간으로, 매년 6월 중 특별 봉사활동 주관을 선정해 국내외 그룹사 임직원 전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이번 ‘글로벌 모범시민 워크’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이어지며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을 비롯한 재능봉사단원, 협력사 직원 약 9,975명이 봉사활동에 참가한다.

봉사활동 참여자들은 광양지역

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곳에서 △온(溫) : 지역민들과 정을 나누는 봉사 △고(故) : 포스코의 역사와 함께한 지역 명승에서 실천하는 봉사 △지(知) :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알고, 진심을 전하는 봉사 △신(新) : 2030세대와 선배들이 함께 아름다운 나눔문화를 계승하는 봉사라는 총 4가지 테마로 소의계층 돌봄, 생태 보전, 지역 복지기관 지원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친다.

지난 9일 광양제철소는 특별 봉사주간 첫째 날을 맞아 광양을 YWCA 무료급식소에 식탁, 화덕 등을 기증하고 재가 중증 장애인들에게 조리된 반찬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치며 그 시작을 알렸다.

/광양=주순의 기자



### 홈플러스 ‘프리미엄 디저트 대전’ 전년비 265% 신장

고물가 현상으로 내식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즐기는 프리미엄 디저트 품목 소비가 늘고 있다. 홈플러스 온라인 고객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디저트 품목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신장하고, 베이커리·요거트 등 프리미엄 디저트 품목 매출은 전년 대비 265% 뛰었다.

/뉴시스

## “일자리 없어 시간제 근로” 102만명...10년간 22.7만명 ↑

지난해 10명 중 6명 ‘생계형’...청년층 최대

최근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 속도가 임금근로자 증가 속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1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102만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79만3000명에 비해 22만7000명 늘었다.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란 전일제 일자리 등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의사가 있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근로를 택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지난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전체 임금근로자 연평균 증가율 1.4%보

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보면, 50대 이상은 2012년 28만7000명에서 2022년 47만명으로 연평균 5.0%씩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은 22만7000명에서 29만명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고, 30대는 9만7000명에서 10만4000명으로 연평균 0.7%씩 올랐다. 반면 40대는 18만2000명에서 15만6000명으로 연평균 1.6%씩 감소했다.

지난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사유별 비중을 보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명 중 6명(60.8%)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 일자리

를 구한 ‘생계형’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17.2%)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3.4%) ▲육아·가사 등 병행(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증가폭을 보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2012년 9.4%에서 2022년 17.2%로 7.8%p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가 2.6%에서 3.4%로 0.8%p 늘었다.

생계형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층(15~29세)이 2012년 7만1000명에서 2022년 13만4000명으로 연평균 6.6%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50대 이상이 23만4000명에서 36만1000명으로 연평균 4.4% 상승했다.

### 광주은행, 중소기업 전용

#### 대금지급 서비스 대출 출시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전용 대금지급 서비스 ‘KJB Trust-On 보증서 대출’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KJB Trust-On 보증서 대출’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의 상호 신뢰하에 기업이 대출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원재료 구매 등 각종 물품구매 뿐만 아니라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다양한 자금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보증료 0.5% 할인혜택까지 주어지는 보증서대출이다.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 약정이 가능하고 플랫폼 사이트(www.trust-on.co.kr)를 통해 지급 요청 정보를 등록한 후 ‘광주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Trust-On 전용 페이지’에서 한도 내 간편로 보증기업이 직접 실행하면 된다.

우대금리는 ▲당행 여신 신규고객 ▲KJB Trust-On 보증서대출 외 광주은행 시설자금 대출 보증고객 ▲영업점장 인정 우대금리 ▲대출 기간 연장 시 은행이 정한 한도소진율 70% 이상 사용 시 제공되며, 신규 시 최고 0.4%p(포인트), 기한연장 시 최고 0.6%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기업뱅킹 홈페이지,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알림서비스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일정을 ‘문자알리미서비스’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자알리미서비스’는 사전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공고 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로 신청·접수 기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제도는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특별공급량을 확보하여 장기재직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로서 상시 모집이 이뤄진다.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권형안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마약류 범죄예방 릴레이 캠페인...12월 31일까지 진행 예정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마약류 범죄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1일 밝

했다.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범죄를 예방하고자 경찰청 주관으로 지난 4월 말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출구 없는 마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후속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현 사장은 “최근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 모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박성현 사장은 다음 주자로 김광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을 지목했다.

/광양=주순의 기자

/권형안 기자